회화의 조건(평면성과 물질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근대미술이 이루어지게 됨.

그동안의 회화가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 명암법에 의존하면서 자연을 모방하는 리얼리즘을 보여주려한 반면, 근대미술은 실제로 눈에 본 세계를 탐구, 작가의 주관성이 들어감. 미술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것이다.

일본미술과의 관계 : 왜 일본 미술을 하느냐? 🡪 근대미술이 탄생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함.

But!!일본미술의 영향을 받고 근대미술이 탄생한 것은 아니다. 근대 미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본의 목판화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감명받음.

1. 시점의 자유로움 : 르네상스 원근법에서 벗어날 수 있음. 2. 평면성 : 명암법 적용x

3. 생동하는 강렬한 색채 : 순수한 색채 추구(근대 미술가). 일본이 천국과 같은 파라다이스라고 생각. 색채가 밝아서..

4. 일본 미술에서 볼 수 있는 모티브의 다양성 : 전통적으로 서양 미술은 역사적, 종교적, 초상화, 누드화에 국한. But 서민들의 생활상 다양하게 보여주는 목판화 보며 감동을 받게 됨.

5. 불규칙성을 통한 자유로운 리듬 : 비대칭의 리듬. 르네상스 이후로 추구했던 모방의 리얼리즘을 초월함. 자연을 마치 거울에 반사시킨 것처럼 재현하고자 하는 서양 미술의 전통성을 벗어나고자 함(근대미술, 모더니즘 미술). 이 미술가들이 보기엔 일본의 목판화는 모방의 리얼리즘을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준다. 서구 미술가들은 심지어 ‘자유의 상징’이라고 생각. 인상주의자들이 평범한 일상을 그리려는 것과 굉장히 유사해서 일본 목판화를 인상이라고 부르기도 함. 회화 뿐 아니라 공예 들어오는 것 보며, 회화와 공예가 평등.. 자유와 평등을 상징한다고 생각.

혁명을 거치면서 신분이 낮은 자의 삶에 관심->일본 목판화를 보니 서민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경쾌한 느낌. 프랑스 사람들이 지향하는 자유 평등 박애의 세상을 여기서 발견했다. 중요한 것은!!!! 서구의 근대 미술가들이 일본의 목판화를 보고 자극받아 시작 xxxx!! 자기들이 스스로 시작했는데 일본 목판화가 자극을 준 것!!!

19) 드가 <국화 옆에 앉은 여인> // 인간은 만물의 영장. 화면의 중심이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감히 꽃이 중심. 인간이 옆으로 가있다. 여자가 짤려있음.

드가 <파리 오페라의 오케스트라> // 중요한 것이 짤려있음.

이와 같이 구도가 짤린 모습은, 시점, 리듬 자유. 일본 목판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음. 재밌는 구도.

히로시게<하네다의 페리선> 다리털 보이고 짤려보임.

사람과 자연이 대등. 근대 사회로 들어가면서 서양에서 자연이 부각됨. 자연주의의 개념이 싹틈. 자연이 부각(근대사회의 특징). 일본 목판화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면서 인간이 우월하지 않음.

1.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생활 속에서 자연의 중요성 알게됨. 2. 평등의 개념 강조되면서도..

21) 드가 <욕조> vs 호쿠사이 <sumo wrestler> (드로잉 화첩, 목욕하는 것 동일) // 일본 목판화 재밌고 해학적으로 만화같이 표현. 드가 그림은 관음증 적인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에로틱해 보임. 포즈는 동일하나 독창적으로 재해석한다.-->자포니즘

23), 24) 모네 그림- 나무고 있고 그 사이에 풍경이 보이는 것. 전형적인 동양의 구도법 (서양에 x). 원근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평면적. 유난히 일본에서 많이 보이는 구도.

25) 우끼요에 // 저 멀리 있는 중요한 후지산을 바라보는 것.

모네 그림은 단순히 구도. 기하학적, 공간을 분할하며 평면성을 가져오는 동시에 원근법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에 관심.

26) 모네 <포플러> // 저 멀리 중요한 것은 없다. 공간분할, 수평과 수직의 기하학적 공간분할에 더 관심

연작에 대한 아이디어 🡪일본 목판화에서 얻음. 후지산 36경,100경 등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 개 그리는 것 아이디어 얻음. 🡪연작의 필요성은 근대사회의 미술계와 상관있다. 근대 사회가 들어오면서 화상이 활발. 소비자(컬렉터, 부르주아)들이 많아지면서… a라는 사람이 포플러를 구입. b라는 사람이 화상에게 가서 포플러 요구. 그러니까 연작을 자꾸자꾸 하게 됨. 일본 목판화를 보니 연작시리즈가 존재. 아이디어를 얻어 연작을 제작하게 됨. 모네는 재테크의 달인. 어마어마하게 연작 많이 해서 그림 팜.

28) 모네 <건초더미: 눈의 느낌, 아침> 모네 <건초더미, 눈의 느낌, 흐린날> // 시시각각 변하는 대기의 빛을 좇는다. 화상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음. 연작은 그림을 팔기 위한 아이디어임엔 틀림없고, 일본 목판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피사로 <풍경> // 전형적인 인상주의의 자연을 보고 그린 그림. 평원의 나열식 구도.

세잔느 // 화면의 견고한 구도, 질서 중요시. 기하학적. 다시점. 수직 삼각형 등 기하학적 입방체 강조. 세잔느는 구도 질서 굉장히 강조. 이세상의 모든 사물은 기하학적 입방체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을 보고 그리는 나열식 병렬식 그림에 비해 질서와 구도를 견고함을 생각하고 있다.

29) 세잔느 <목을 맨 사람의 집> // 세잔느는 일본 목판화 겉으로는 굉장히 경멸했다. 일본 목판화는 장식용 포스터같다. 화가의 정신이 없다. But 그러나 일본 목판화에서 영감 얻었다. 푸생을 존경하나 푸생의 것과 그림 다르다. 일본 목판화 영향 받음(정설)

푸생 – 세잔느가 가장 존경하는 고전주의 작가. 가운데 나무. 단단한 구도를 보여줌.

31) 세잔느 <겨울의 자 드 부팡의 밤나무> - 쌩 빅투아르 산 연작. 호쿠사이의 영향. 나무들 사이로 쌩 빅투아르 산이 보인다. 이 구도는 틀림없이 호쿠사이에서 옴. 일본사람들에게 후지산이 신성시되듯이, 프랑스 그 지방 사람에게도 쌩 빅투아르 산 신성시. 수평과 수직, 삼각형 등 기하학적이고 견고한 형태감각을 보여줌. 세잔느는 자연을 회화의 법칙으로 탐구한 사람.

호쿠사이의 우키요에 - 낭만적, 서정적, 감미로움.

32) 조감도적인 것. 이와 같은 시점의 자유로움으로 더욱 풍요로운 것을 표현할 수 있다.

33) 에셔 브라운 듀란드 – 깊이의 원근법.

세잔느 – 나무를 중앙. 수직을 그어서 평면성을 유지. 철교의 수평과 만나 기하학적이고 견고한 느낌. 평면성을 유지. 환영(일루전)을 최대한 없애려고 함. 여기서도 일본 목판화의 아이디어가 보인다. 구도법을 응용해서 자신의 회화의 법칙을 응용해 나갔다.

34) 세잔느 – 생 빅토와르 산, 메당의 성 // 수평과 수직의 엄격한 질서, 추상적 구조 볼 수 있다.

35)고갱 – 생동하는 강렬한 색채, 평면성🡪목판화의 영향. 천사와 싸우는 야곱의 장면은 스모에서 영향을 얻었다. 35)고갱 - 일본 목판화의 영향 얻었다.

38) 동양의 발 보임. 일본의 영향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9) <랑글르와 다리> , <일본식 다리> // 화면의 저 위에 다리를 배치하는 것은 드문 기법. 이 기법은 일본 목판화에서 나온다. 조각배는 조감도적(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 같은..

41) 호쿠사이, 반고흐, 고갱, 모네 // 일본 목판화의 영향 받음. 일본 미술에서 받은 영감을 독창적으로 재해석🡪자포니즘

19c 동양 미술에 대한 관심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쉽다. 그러나 클림턴은 한국도자기 좋아함.

18c 중국 / 19c 일본 / 동양(동아시아, 특히 일본)에 대한 관심은 2차 대전 이후 더 극대화

46) 클라인 작품 예시. 르네상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동양미술에서 찾음. 2차대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양미술이 미치는 영향 확인. 자연에서 독립, 회화는 자연과 대등한 독립된 세계가 되는 것. 모더니즘 미술🡪추상미술 탄생

**현대미술: 추상의 탄생과 전개**

1) 바넷 뉴먼 <십자가의 길 14처 중 제 3처> // (제3처 :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바넷 뉴먼은 14처 모두 다 그림. 그림 다 비슷. 왜 이렇게 그렸을까?-->

그뤼네발트,16세기 – 성경의 이야기. 예수 십자가에 못박힘. 한 제자는 기도하는 자세로 슬퍼함. 성모 마리아(순결 상징)가 너무 슬퍼서 기절. 제자가 부축해주는 장면. 성경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작가의 창조성을 발휘해 하나하나 그림. 세례자 요한 예수 죽기 전에 이미 죽음. 이미 그려진 이유 :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최초로 말함. 양 또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줌. 이 그림을 보며 성경의 이야기 벗어날 수 없다. 성경의 이야기 떠올리며 해석하는 즐거움->성경의 이야기에 국한.

추상 미술은 성경의 어떤 이야기 교리 전설 전달 x,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보는 사람은 마음껏 상상하게 함(사고의 무한함), 사고의 폭이 넓어짐.

20c 가장 위대한 업적, 발명 5가지 중 하나 – 추상의 탄생! 추상은 20c 업적이고 산물이다. 휴머니즘, 또 다른 인간성의 승리다. 첫번째 인간성의 승리 – 르네상스(신->인간 중심의 사회), 인간이 눈으로 보는 자연 그리려 함(원근법 등). 과학의 승리. 두번째 – 타성에 젖은 르네상스. 인간 자신이 사고하고 생각. 인간성의 승리.

2) 바넷 뉴먼 <여호아>, 뉴먼 <아담> // 여호아 본 사람 아무도 없다. 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한다. 각 개인이 생각하는 여호와, 아담이 다 정답이 되고 작품의 의미가 된다.